**Credit Suisse – FICC 인턴후기**

안녕하세요~ 다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ㅋㅋ 간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맞아 인턴 후기나 올리려고 왔습니다. 저번에 썼던 메릴린치 후기를 읽어보니 뭔 책을 써놨길래 -\_- 그렇게 자세히 길게 쓰진 못하겠고 간단간단하게 쓸게요.

**<부서>**

6월 7일부터 어제까지 4주간 Credit Suisse 증권의 Fixed Income Division에 있었어요. 국내에 있는 IB들은 대부분 은행 법인과 증권사 법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내법상 은행이 증권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FICC가 증권/은행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실 같은 팀입니다. 증권쪽 FID에서는 채권중개업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국내투자자들의 해외채권중개를 합니다. 해외투자자들의 국내채권중개는 싱가폴이랑 홍콩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법인에서 담당하지 않고요, 이 점이 주식부랑 큰 차이점이죠.

**<고객>**

국내투자자들 중에서 해외채권에 투자할만큼 돈이 많은 곳은 한국은행(특히 외환보유고운용),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의 정부관련 Agency랑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입니다. 이 중 한국은행의 주문이 압도적이고요, 국내의 모든 IB들이 한국은행 비지니스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들은 내공이 매우 높기 때문에 리서치자료 등을 요청할때 번역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ㅋㅋ 게다가 맨날 조낸 어려운 것들을 물어봐서 쩔쩔 매죠 흑흑

**<일과>**

주니어의 경우, 아침에 7시반~8시쯤 와서 그날의 데일리를 써서 고객들에게 뿌립니다.(CS만 그렇게 한다는 소문도 있음) 8시 45분이랑 9시 15분에는 컨퍼런스콜이 있고요, Credit/Rates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의 View를 얘기하죠. 오전 오후 모두 고객들의 블룸버그/메신저 문의에 응대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고객들이 뭘 조낸 물어보는데 이제 인턴을 시키든 자기가 하든 답변을 잘 해줘야 합니다. 점심/저녁은 고객들과 먹을 때가 많고, 진정한 근무의 시작은 저녁 먹고부터입니다. 런던장~뉴욕오전장 동안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가격문의 전화를 받으면 런던/뉴욕오피스 트레이더한테 전화해서 가격을 받아다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가격이 맘에 들면 거래ㄱㄱ. 시니어는 뭐 실제로 나가서 고객들이랑 더 친해지고 더 많은 딜을 받아오는게 임무구요, 그래서 저녁식사, 술자리, 골프 등등에 매우 많이 참석하며 일과 시간에도 외부에 나갔다 오는 일이 많습니다. 저같은 인턴의 경우 주니어의 손과 발이 되어 뉴욕오전장 끝날때까지 남아 있었구요, 그 결과 2주에 한번씩 몸살이 나더군요 OTL

**<분위기>**

고객이 다 한국기관이라서 그런지 주식부와는 달리 굉장히 한국적인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비서를 제외한 여직원이 전혀 없고 거의 군대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점장님의 강력한 인사정책에 의해 현역으로 군복무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심지어 카투사도 없음 -\_-) 우대사항이 있다면 해병대 출신? 감점사항이라면 외국대학출신-\_- 입니다. 참 보수적+한국적인 분위기에요 ㅋㅋ 지금 생각해보니 채권팀은 증권/은행 모두 외국대학(대학원 제외)출신이 아무도 없군요;; 암튼 채권업무를 하고싶으신 후배님들께선 현역을 가시길.